

# 우리 근대문학 논의의 새로운 전망

구중서·최원식 엮음 《한국근대문학연구》

우찬제

건양대 교수·국문학

1990년대 중반인 현재 우리 문학 연구는 꽤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일찍이 조운제·장덕순·정병욱 교수 등 한국문학 연구 1세대들이 우리 문학연구의 기틀을 다진 이후, 2세대들에 의해 근대문학 연구의 초석이 놓여졌다. 김용직 교수의 《한국근대시사》(1982), 박철희 교수의 《한국시사연구》(1980), 이재선 교수의 《한국현대소설사》(1979), 김윤식 교수의 《한국근대문예비평사 연구》(1976), 김윤식·김현 교수의 《한국문학사》(1973) 등의 출간이 지나는 의미는 각 별하다.

## ‘근대성’ 문제 새롭게 논의

이들을 편이상 근대문학 연구 1세대라 불러도 무방하겠거니와, 우리 근대문학 연구의 학제적 틀을 확립함과 동시에 그 체계와 내포를 나름대로 확정지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공헌을 찾을 수 있을 터이다. 이들은 주로 실증적 차원에서 근대문학 자료를 확정함과 동시에 그 계통을 정리하고 신비평 등 문예비평 이론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근대문학의 미학적 의미 탐색에도 열정을 보였다. 이들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근대문학 연구 2세대들은 주로 방법론적 성찰과 해석학적 지혜를 발견하는 쪽으로 연구의 방향을 다잡았다.

이 과정에서 신비평을 비롯하여 구조주의·형식주의·마르크시즘·사회문화적 비평·심리주의 비평·신화비평·기호학·수용미학·페미니즘 비평·현상학·해석학·문학주제학·탈구조주의·신역사주의 등 여러 관점과 방법론들이 근대문학 연구에 활용됨으로써 해석의 깊이와 문예과학적 체계성을 도모했다. 이런 방법론들이 백가쟁명식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다시 통합적인 근대문학 연구의 시각이 열려 새로운 근대문학사가 집필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통일문학사를 예비하는 의미있는 여러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민족문학사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가치지향적 연구동향이다. 지난 1980년대의 진보적 이념에 토대를 둔 민족문학 연구의 활성화 차원에서 1990년에 연구소를 창립한 이래, 민족문학사의 과학적 정립과 진정한 민족문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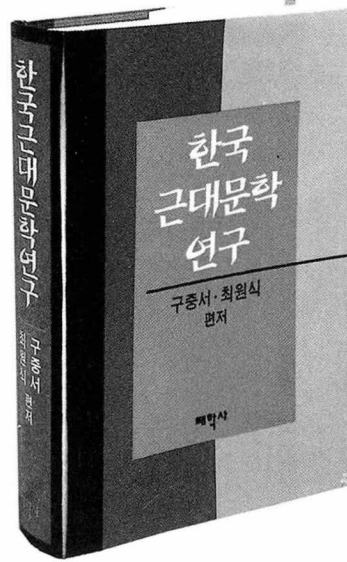
이 논문집은 구체적인 역사와 현실 안에서 우리 근대문학과 문학사 논의를 반성하고 새로운 전망을 제공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인다. 특히 친일문학·북한문학 논의는 '문제적'이며 근대 비판 논의 역시 시사적이다.

쪽의 연구성과들은 반년간지 《민족문학사연구》를 통해 공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리 문학사 인식》, 《민족문학과 근대성》, 《민족문학사 강좌》 등의 논저를 통해 학계에 보고되었다. 이런 연구경향은 대체로 민족문학사의 체계와 계보학에 대한 새로운 모색, 북한문학과 북한의 문학사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통일문학사 대비하기, 우리 문학의 근대성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 지평 제공, 개별 작가와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가치부여 등의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최근 출판된 《한국근대문학연구》(구중서·최원식 편저)는 비록 민족문학사연구소 명의로 보고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쪽 계열의 연구 성과의 연장선상에 놓이는 논문집이다. 임형택·염무웅·구중서·최원식 교수 등 중진학자들로부터 김재용·신두원·강진호 등 소장 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28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이 논문집은 한마디로 가치지향적 근대문학 연구의 한 성과와 수준을 보여준다 하겠다. 편저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현실안에서 입체적으로 의미와 가치를 구축하려 한 작업들”인 셈이다.

## 북한문학 연구는 주목할 만

이 논문집은 민족문학과 문학사, 친일문학, 북한의 문학, 시와 리얼리즘, 작가와 작품 등 모두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임형택 교수의 〈19세기 문학예술의 성격, 그 인식상의 문제점〉은 우리 문학사에서 대단히 문제적인 시기인 19세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포괄



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이다. “민중성의 여러 표현 형태들이 전면으로 활발히 부상한 시대”로 19세기를 성찰하는 논자의 이 논문을 통해 민족문학사의 연속성 측면에서 하나의 약한 고리로 여겨졌던 한 시기에 대한 무게 있는 논점을 얻게 된다. 구중서 교수의 〈문학사와 근대성·근대기점〉은 근대성 및 근대기점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한국 근대문학의 1860년대 기점설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2장은 친일문학이라는 민족문학사상의 오점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다. 김승환 교수의 〈친일문학의 논리와 사상〉은 이광수·김기진·최재서의 친일문학 논리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면서 새로운 민족문학사 정립 과정에서 친일문학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나름의 시각을 제공한다. 이경훈 교수의 〈이광수의 새로운 친일문학 자료에 대하여〉는 친일문학 작품집 《동포에게 부침》과 친일소설 〈두 사람〉이라는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해설한 글로 자료발굴의 가치를 지닌다.

이 논문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3장 북한의 문학 부분이다. 비교적 일찍부터 북한 문학의 실상과 문학 연구의 논리를 연구해 오면서 나름대로 통일문학사를 대비해온 연구자들의 논문이 실려 있다. 북한의 항일혁명문학의 전개 과정을 검토한 임현영 교수의 논문도 문제적이지 않지만, 김성수의 〈북한의 문학관 고찰 — 사전, 이론서의 문학 규정을 중심으로〉와 김재용의 〈북한의 근대문

학사 인식 비판(1) — 카프문학을 중심으로〉가 지니는 연구사적 환기력은 큰 편이다.

김성수는, 이번 논문에서 북한의 문학관에 대한 발본적이고 역사적인 고찰을 비판적으로 수행하면서 이질적인 남북한 문학관의 통합적 전개 가능성에 관한 지혜를 요청하고 있다. 1967년 주체사상의 유일체계화 확립을 전후한 북한 문학관의 변화상, 주체사상의 이념적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던 1980년대 중반에 “문학의 언어기법적 측면과 심리묘사적 측면이 중시될 수 있었”던 사정에 대한 검토, 1990년대 김정일의 주체문학론 이론체계 등 시기별로 북한 문학관의 특징을 요령 있게 정리한 공로는 인정되어야 마땅하나, 이질화된 남북한 문학관을 통합하고 극복하여 통일문학사론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미학적·해석학적 토대에 대한 지혜를 여전히 감추고 있는 것은 학계 전체를 위해서 좀 유감스런 일이다.

## 근대비판 논의의 시사적

김재용의 〈북한의 근대문학사 인식 비판(1)〉은 북한문학사의 약한 고리인 카프문학 부분에 대한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카프문학 연구를 통해 남북한 문학연구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며,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통일문학사에서의 근대문학사 인식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자의 입각점은 타당성을 확보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구체적인 역사와 현실 안에서 우리 근대문학과 문학사 논의를 반성하고 새로운 전망을 제공하고자 한 노력의 흔적을 읽을 수 있는 논문집이다. 친일문학 논의와 북한문학 논의는 특히 문제적이다. 또한 근대성 및 근대기점 문제와 하정일 교수 등의 논의에서 비친 근대 비판 논의 역시 시사적이다. 그러나 문제제기에 비해 방법론이나 문제 해석안의 심화 필요성은 요청된다. 다원적인 방법론적 성찰과 세계문학적 지혜를 통해서 민족문학 연구의 새로운 가치 지평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

태학사/A5신/722면/25,000원